

● **여성의 채뇨기로도 편안한 변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기의 선단이 요추 위치에 오도록 깊이 밀어넣고 가랑이에 휴지를 끼웁니다.

※여성의 경우 배뇨와 배변을 동시에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변이 흘날리지 않도록 휴지로 앞을 씌우거나 또는, 변기 뚜껑으로 뚜껑의 소변유입홈이 변기쪽으로 향하게 하여 앞을 가려서 소변차단막으로 사용하면 소변이 변기쪽으로 유입됩니다.



● **각부의 명칭**



\*구성품 : 변기, 변기뚜껑, 패드, 세척솔, 설명서

**품질경영 및 공산품관리법에 의한 품질표시**

- 제 품 명 : 아시아 편안한변기
- 모 델 명 : ABP-101
- 용 량 : 1,630ml
- 재 질 : 본체/뚜껑-폴리프로필렌
- 제 조 원 : (주)아시아엠이
- A/S상담실 : (031)677-7522

● **AME 편안한변기의 특징**

1. 좌면이 넓고 체형에 적합한 곡면으로 형성되어 환자의 자세를 안정시키고 허리부의 통증을 완화합니다.
2. 용량은 1,630cc로 충분히 담을 수 있어 안심하고 사용 가능합니다.
3. 딱 맞는 뚜껑은 냄새유출을 막고, 불룩한 형상은 오물이 들러붙는 것을 줄여줍니다.
4. 손잡이는 소변기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5. 본체와 뚜껑은 폴리프로필렌수지를 사용하여 병원의 증기소독기나 크레졸액에 의한 소독이 가능합니다.
6. 본체와 뚜껑의 형상은 병원의 증기소독기에 사용가능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 **손질 및 소독방법**

1. 매 사용 시, 변기와 뚜껑은 물세척하고 일광소독하는 것이 위생적입니다.
2. 통상의 소독 이외에 10일에 1회 정도 크레졸을 물에 희석한 용액으로 소독하면 좋습니다.  
※크레졸에 관하여는 사용상의 주의가 요하므로 약국 등에 문의바랍니다.
3. 병원 등에서 사용하는 변기소독기로 소독시에는 뚜껑을 뒤집어서 변기본체 밑에 삽입하여 소독합니다.  
※증기소독의 경우는 반드시 패드를 빼고 해 주십시오.
4. 패드는 물세탁이 가능합니다. 물빠짐이 빠르고 건조가 좋은 재질로 되어있습니다. 패드의 크레졸 소독은 피해주십시오.

# AME 편안한 변기

인체공학적인 넓은 좌면의 곡면설계  
허리를 편안하게 하는 패드부착형



사용 전에 반드시 취급설명서를 잘 읽어 보신 후, 올바르게 사용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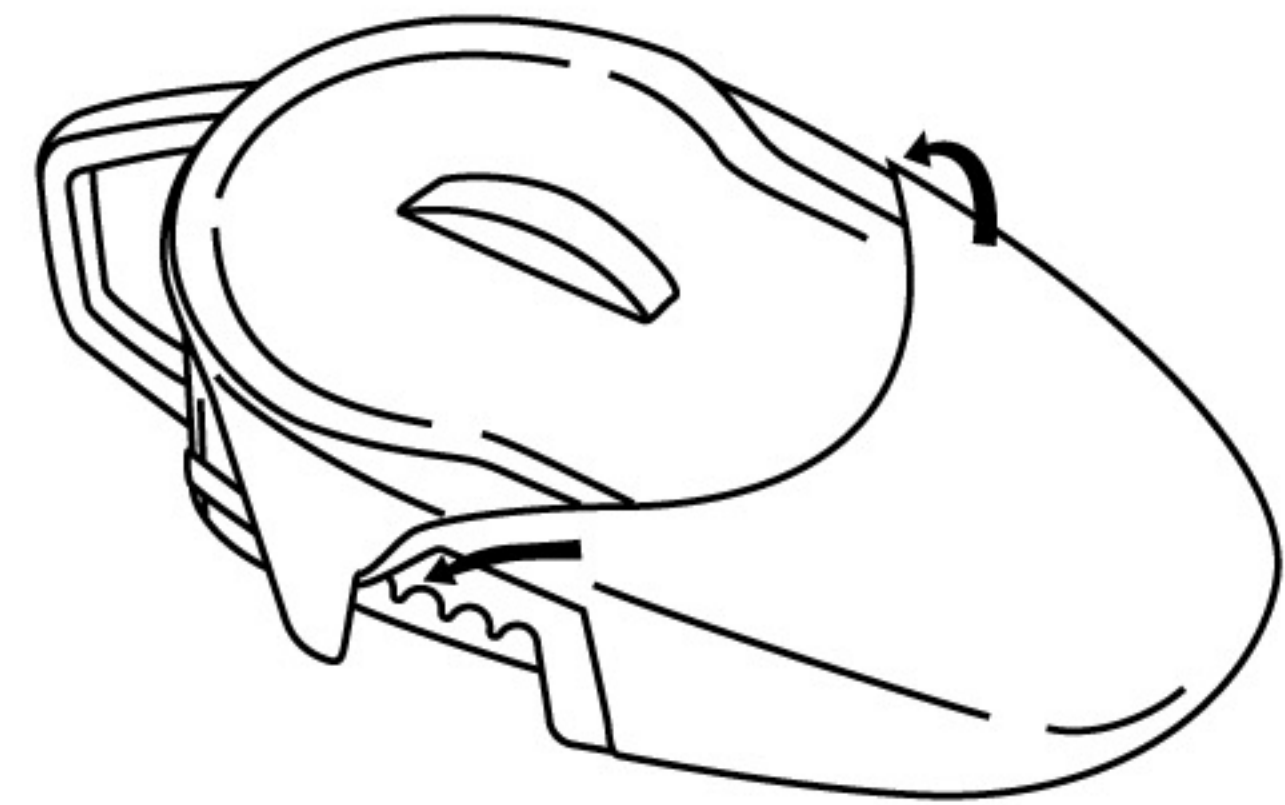


# 인체공학적인 넓은 좌면의 곡면설계 허리를 편안하게 하는 패드부착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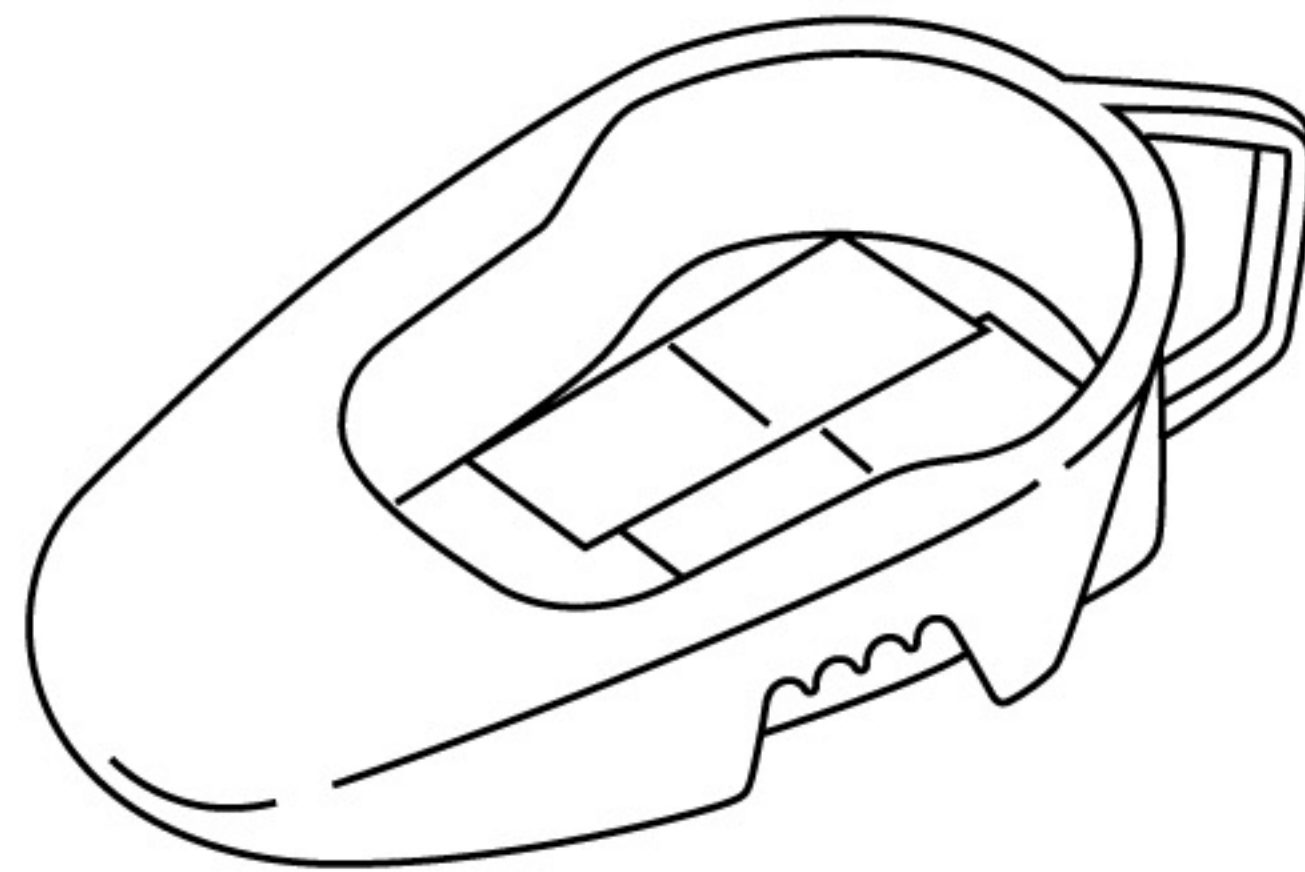


## ● AME 편안한변기의 사용방법

- 환자가 안심하고 배변을 할 수 있도록 미리 시트나 비닐을 깔아 두십시오.
- 패드는 그림과 같이 앞에서부터 싣우고, 끈을 본체의 측면에 있는 손잡이를 통하여 후면 손잡이 부분 안쪽에서 체결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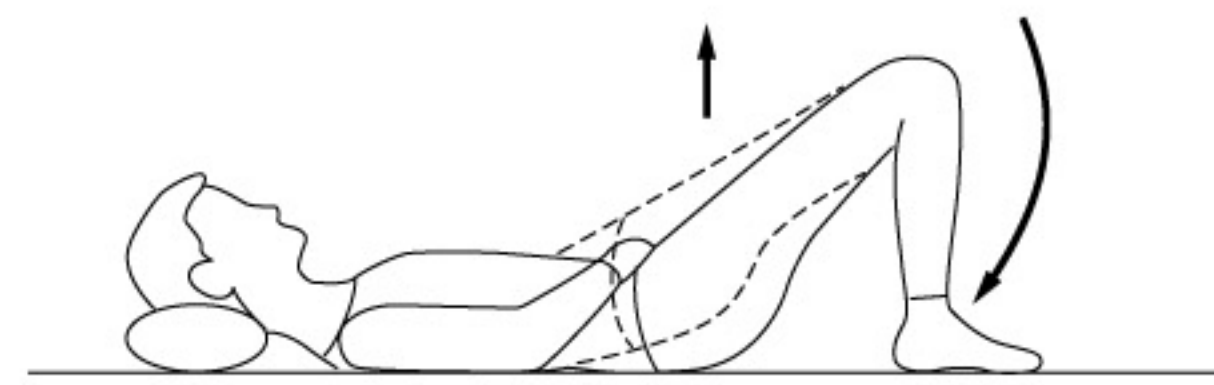
- 변기 안에 휴지 등을 깔고 사용하시면 뒤처리가 보다 용이합니다. (티슈는 물에 녹지 않으므로 사용을 삼가 해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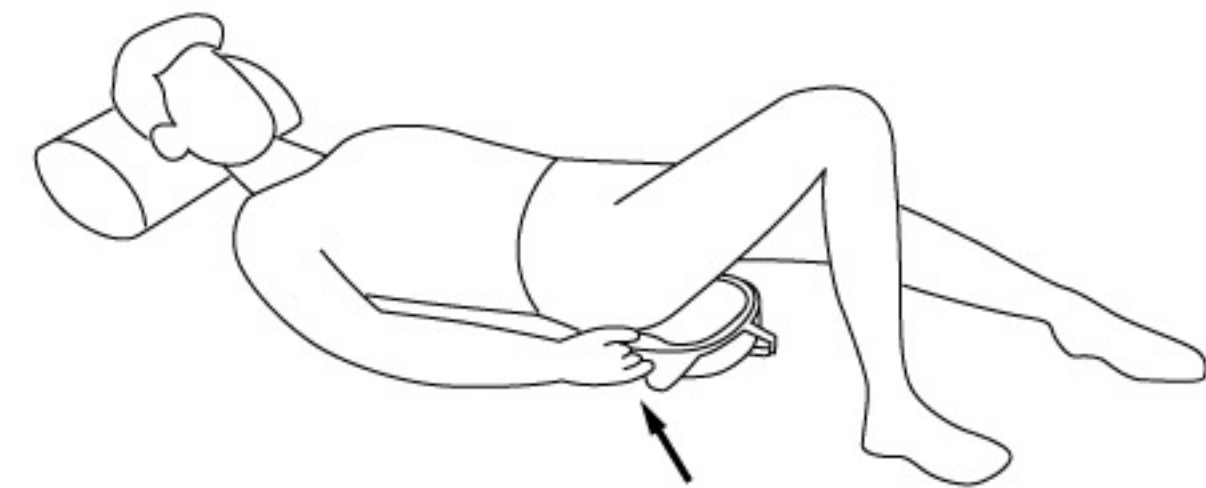
## ● 환자 본인이 사용하는 경우

1. 스스로 허리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평소에 허리들기 운동을 해 두십시오. (아침, 저녁 5~6회 싣을 목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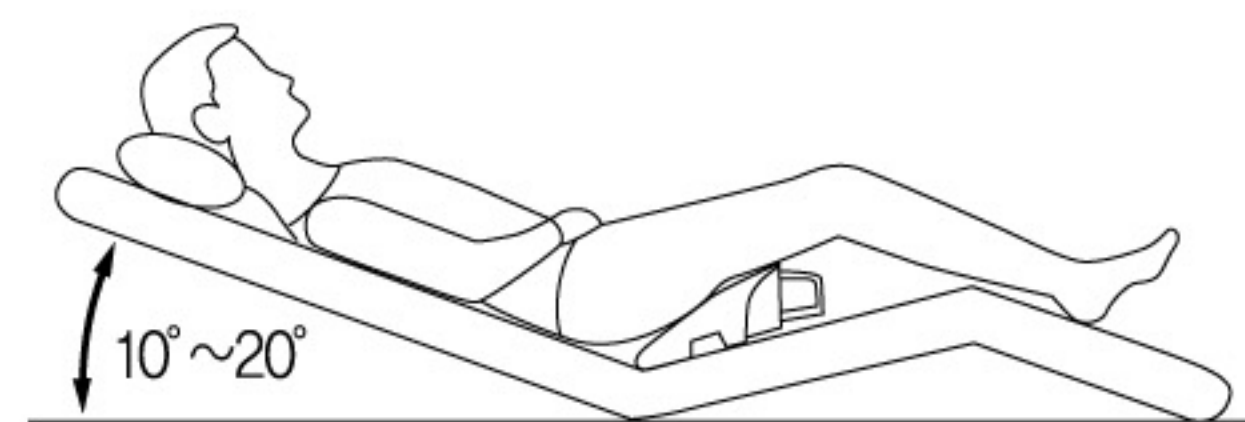
발을 끌어 당기는 것이 힘이 들어갑니다.



2. 편안한변기의 측면 손잡이를 잡고 자신의 엉덩이 밑에 넣어서 사용합니다.



3. 침대사용자는 상반신을 10~20°를 올려서 사용하면 용이합니다. (상반신 각도를 지나치게 올리면 엉덩이가 미끄러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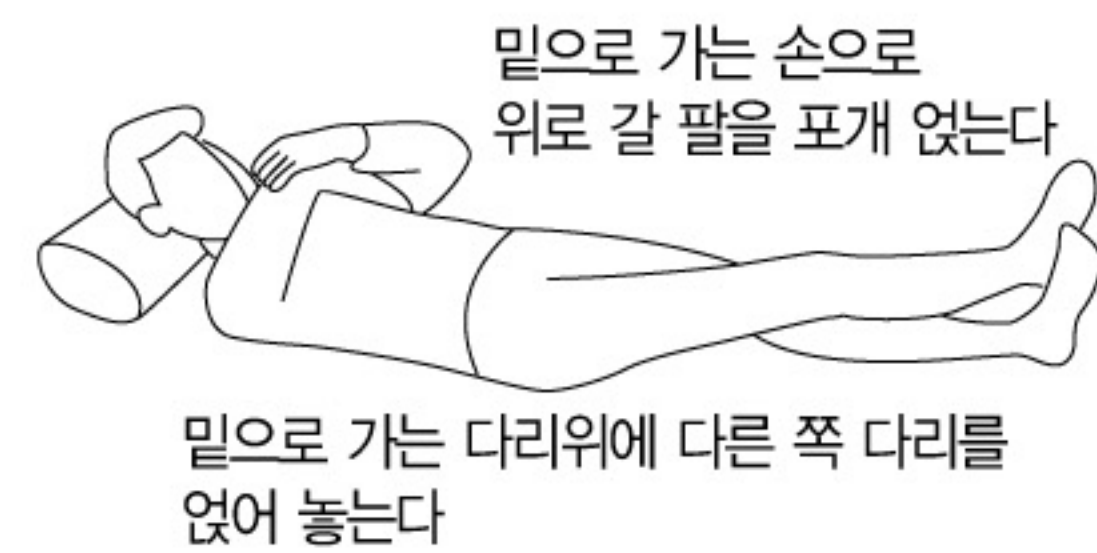


## ● 요양사가 사용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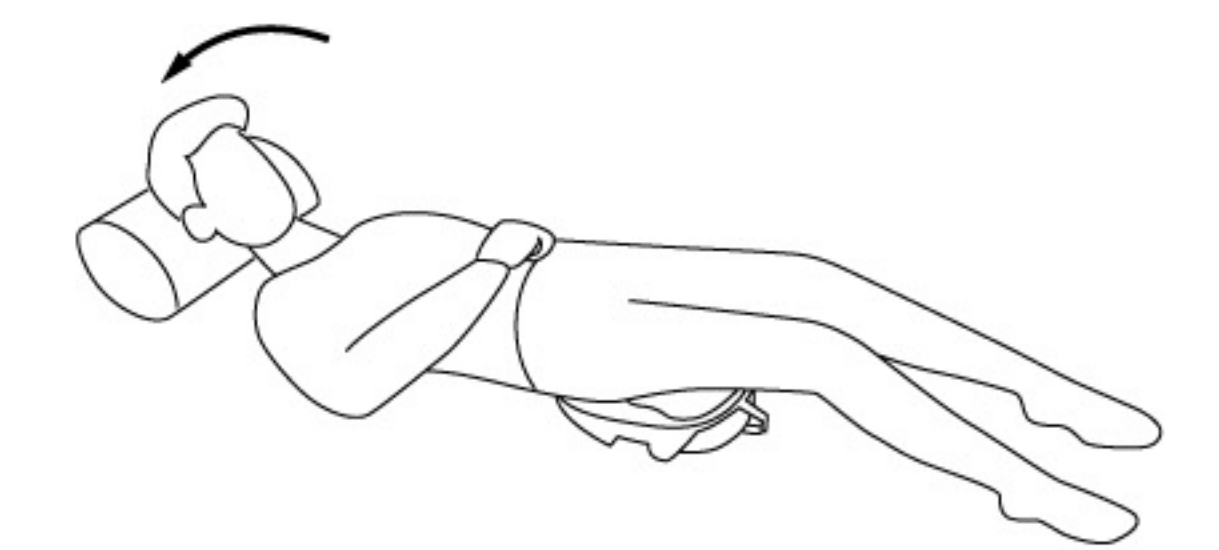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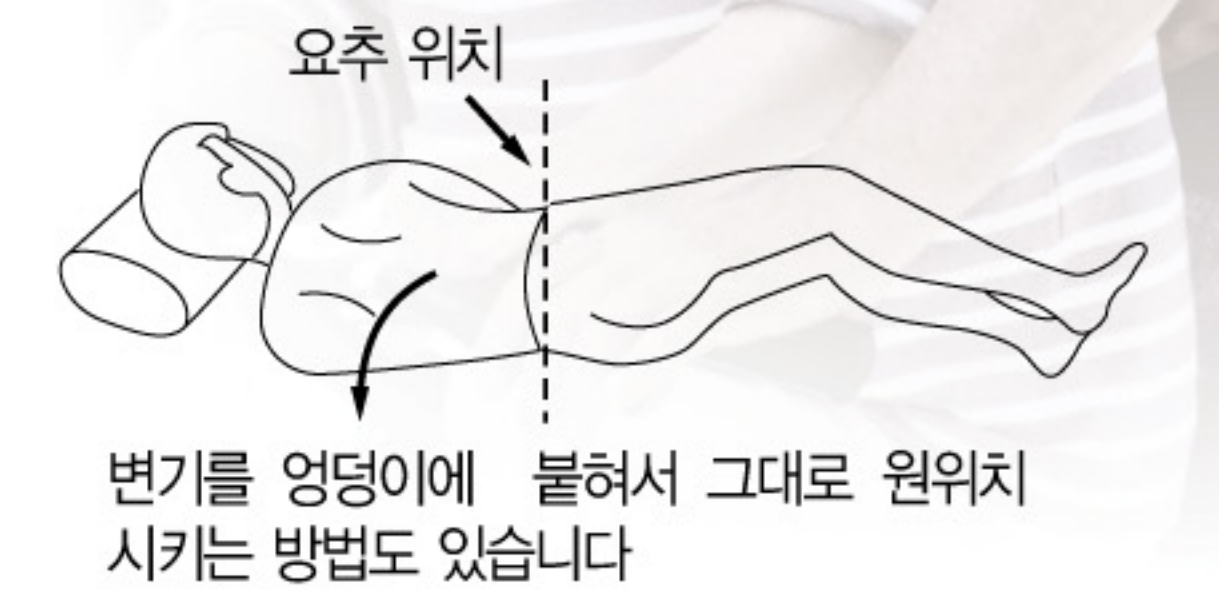
1. 환자는 무릎을 벌린채 다리를 세워서 하나, 둘 구령에 허리를 들고, 요양사는 그 순간 변기를 밀어 넣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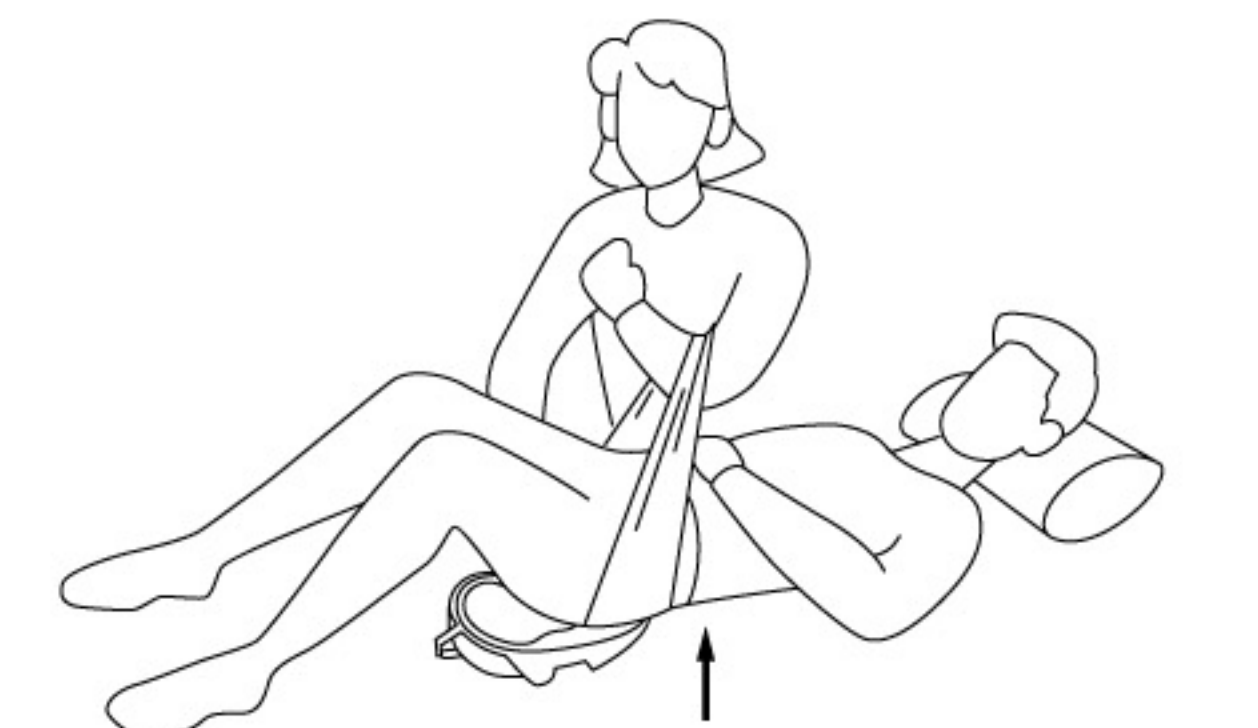
2. 체중이 무거워서 허리를 들어 올리기 힘든 사람은 그림과 같이 환자를 일단 옆으로 밀어 놓고 변기를 엉덩이 밑에 위치한 상태에서 원위치 시킵니다.



요양사의 무릎으로 변기를 환자의 엉덩이 위치에 맞게 조절하면서 원위치를 하면 위치가 틀리게 되지 않습니다



3. 환자의 다리에 질환이 있어 옆으로 눕기가 안되는 경우나 또는 다리를 세울 수 없는 경우에는 그림과 같이 합니다.



그림과 같이 큰 보자기같은 수건을 비스듬이 접어서 엉덩이 밑으로 돌려 한쪽 팔을 깊이 넣어 들어올린다.